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⑧ 대학원생들의 지적 교류, 일한관계에 희망 보여

July 05, 2013

좋아요 17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⑦강연, 공연, 공연. 세 가지 '고엔'으로 젊음을 되찾다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즐겁달까, 신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의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란 재킷, 흰 바탕에 검은 선을 흩어 태극기를 연상하게 하는 재킷,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얼마 전 국민으로서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양한 색채의 '재킷 정치'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다.

패션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에게 최상급의 대우를 받았다. 칭화(淸華)대학교 강연에서는 유창한 중국어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끌어냈다. 고도 시안(西安)을 방문해 세계적인 역사유산 병마용갱을 견학하기도 해, 중국 언론 역시 환영의 목소리로 한결같았다. 이렇듯 주목받는 여성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방문에 이은 '외교 데뷔'의 여정을 화려하게 마쳤다.

자, 서울에서 이를 바라보는 일본인으로서 기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조금 복잡한 심경이다. 오래도록 중국, 한국과 친밀한 관계였던 일본이건만, 지금은 어느 쪽과도 원만하지 않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국 정상회담도 중국이 꺼려 무산된 채 머물러 있는데다, 일중은 고사하고 일한 정상들이 서로 방문할 전망조차 안갯속에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에 그렇다.

● 포럼 10년, 차세대가 진검승부

그러나 적어도 일한관계의 파이프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착실하게 두터워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실감했다. 이 대회는 일본과 한국의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원생 총 300명이 한 데 모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나누는 아주 지적인 학술행사이데, 이번 대회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대회였다.

나는 개회식에서 동아일보 심규선 논설위원실장과 대담을 갖고 일본과 한국에 대해 서로 견해를 밝히는 역할을 맡았는데, 학생들이 진검승부를 펼친 곳은 10개로 나뉜 분과별 발표회였다. '박정희 정권하의 일한관계',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 수용정책', '중국 젊은이들이 바라본 대일의식', '러시아에서 본 북방영토문제'..... 80편에 이르는 논문들은 국제관계를 비롯해 역사, 문화, 민속 등에 걸쳐 실로 다채로웠다. 일본 측 발표에는 한국 측이 코멘트를, 한국 측 발표에는 일본 측이 코멘트를 맡는 방식으로, 장내에는 날카로운 질문도 날아들었다. 진행도 통역도 학생들이었고 양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도 참가해, 풍부한 국제색에도 놀랐다.



리셉션에 참석한 포럼 참가자들



More AAA

Facebook

Twitter

어떻게 이런 대회가 시작된 걸까. 10년 전부터 중심 역할을 해온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은 “일반적인 대학원생들은 논문을 발표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야 사정이 딱하고 성장의 기회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 고안한 것” 이라 한다. 예전에 게이오(慶應)대학교에서 박사논문을 쓴 장 총장이니 일본과 한국에 지적 가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10년 동안 모두 4000명. 교류의 저변은 확실히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밤에는 리셉션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 포럼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년에도 오겠습니다.” 10회 모두에 참가해온 가나가와(神奈川)대학교의 호주 출신 학생이 기념품을 받으며 전한 인사말이다. 일본과 한국의 학생대표도 “양국을 잇는 인재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고 희망을 말했고, 다음날은 다 함께 거제도 관광을 떠났다.

개회식 대담에서 “지금 일·한의 정치관계는 최악” 이라 한탄한 나지만, 이 포럼에서는 큰 희망을 발견한 듯 여겨졌다. 앞으로는 역시 젊은이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 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2013년 1월 아사히신문 주필 자리를 떠나, 3월부터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 권오기 씨와의 대담) 등이 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서울에서 쓰는 편지 일한관계 한일차세대학술포럼

1



좋아요 17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⑩ 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은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나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 즐겁을까, 신촌에서의 하 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나는 자취가 서툰 외국인이 낯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⑦ 강연, 원, 공연. 세 가지 ‘고엔’ 으로 젊음 되찾다

June 20, 2013
강연, 공연, 공연. 한국어 선지 일본어 발음은 다 똑같은 그런 ‘고엔’ 의 연속된 한 주였다.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⑥ ‘배 (拜啓) 김대중 선비님’ 나를 비판하는

기사에 답장

June 03, 2013

한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1925~2015)이 있다. 조선일보 전 주필(1925~2015)인 김대중 씨다. 김 고문은 언젠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다. 그 칼럼 중 한 편에서 내가 비판의 대상을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⑤국제스포츠부한 우리 반

May 16, 2013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첫 회담을 했다.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훌륭히 연설도 했으니, 대통령 대변인이 워싱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바깥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